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김기태*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현재 어떤 상황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현황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육 대상 매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장(場), 교육 수준, 교육 대상 연령, 교육 주기, 학교 교과 유형, 교육 시행 주체 등의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대상 매체로는 주로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등 뉴미디어 그리고 신문, 영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미디어 내용 읽기', '수용자 의식 함양' 등의 순이었다.

교육 방법은 메시지 분석 방법, 매체 모니터교육, 매체 제작활동, 매체의 교육적 활용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 사이에는 모든 교육이 상호교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지도자 대상 교육과 일반인 대상교육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한국언론재단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교사 대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교육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이었으며 유치원 대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은 계발활동(CA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한 미디어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교육 시행 주체는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교육과 공공기관 미디어 교육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분석되었고, 점차 공공기관 지원 미디어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사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체사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문화방송과 교육방송의 미디어

* kkr0007@hanmail.net

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 방과후교육, 정규교과목

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활발한 만큼 논의의 내용이나 질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관련 논의들이 주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원론 수준의 중요성 강조에 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진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관련 논의가 매우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¹⁾ 아울러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교육 현장의 개별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 중심이거나(한국미디어 교육학회, 1997~2005) 정책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중심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²⁾ 특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비해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한국 매체 환경에 맞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델이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최창섭(2000), 안정임(2000)의 연구 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델 개발

-
- 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미디어 교육 관련 논의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보다는 관련 학계나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운동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1997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미디어 교육 제도화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언론학 관련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마다 거의 예외 없이 미디어 교육의 독립교과목화를 강조하고 나서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 2) 2002년부터 3년 동안 활동했던 한국언론학회 산하 미디어 교육특별위원회도 연구 중심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신문방송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개척 차원에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였다.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추세와 교육 환경의 변화 양상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미디어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³⁾ 아직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시범 또는 실험적 모델교육의 형태 이긴 하지만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 실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해가고 있는 실정이다.⁴⁾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처음 강조되었던 역사는 이미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⁵⁾ 그 역사의 길이에 비해 실제 현장 사례는 그렇게 풍성한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그동안 학교보다는 종교단체나 사회운동단체가 주도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작 제도적 정착에 필요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실천이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의욕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본 몇몇 교사들의 실천 사례들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논의의 장이 부족해 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학교 미디어 교육 실천 사례들이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또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분

3) 최근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대부분의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바로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이다.

4) 실제로 현재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사례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이를 모두 아우를만한 조직적인 통로도 없는 실정이다. 1997년 12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0회 대회까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주최 미디어 교육전국대회에서의 사례발표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종합사례 발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미디어 교육 추진 사회단체 중심의 모임이나 지원 단체 중심의 사례 발표 등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5) 1975년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OCIC/ASIA와 UNDA/ASIA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서강대 최창섭 교수 일행이 당시 호주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던 케너번(Kelvin B. Canavan) 수사와의 교류를 계기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1980년 “초·중·고교생을 위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최창섭, 신문연구, 관훈클럽)라는 국내 최초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산적이고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실적주의에 기울어 실질적인 자료 축적이 나 경험의 공유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미디어 교육의 과잉 담론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미디어 교육의 체계화나 제도화를 위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김기태, 2004).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논의와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우선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어떤 상황과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 교육사례들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언론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초·중등학교 정규교과목화라는 과제를 논의하는데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전 연구 성격도 지니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상 새로운 독립교과가 신설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해결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작은 자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정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극대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의식을 토대로 스스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주체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주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식 배양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인 셈이다.

미디어 교육은 매체의 긍정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창조적 활용교육과 역기능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적 예방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보호주의 패러다임, 대중예술 패러다임, 학습도구 패러다임, 표상 패러다임과 같은 논의들도 결국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대책의 방식과 목적 즉,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안정임, 1999).

결국 미디어 교육이란 올바른 매체이해 및 수용교육인 동시에 주체적인 창조 및 활용교육이다.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를 인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인 셈이다. 현대사회의 지배적 환경이 되어버린 매체환경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파괴에 이르게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김기태, 1988).

이런 점에서 미디어 교육은 매체본질(언어 및 구조) 이해교육, 매체비판 및 비평교육, 매체감상교육, 매체수용교육, 매체의 창조적 활용교육, 매체적응교육, 매체제작교육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Education Media), 즉 교육공학적 개념을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래 미디어 교육의 기본 이념은 올바른 수용자 교육으로 수용자에게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교육(Media Education)으로서 매체의 교육적 활용과는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근자에는 이 양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즉 개념적 정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교육 방법 개발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⁶⁾

6) 최근 '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나친 이론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대한 만큼의 학습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는 개념은 주로 북미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란 용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이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는 개념의 다양성, 즉 미디어 교육의 목적이나 실천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맞는 개념을 스스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⁷⁾

3.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1) 미디어 교육 성격 분석을 위한 유목

앞에서 살펴 본 미디어 교육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목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1> 분석 유목의 설정은 모든 교육 실태 분석의 기본 항목인 교육 목적, 주제, 대상이라는 기본틀을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디어 제작 실습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교육 방법의 개선이란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 7) 최근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 개념과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정의를 마련하지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단일한 몇 가지 언어나 문장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시도가 오히려 미디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 정의의 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교육 현장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열려진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의거하여 모두 9가지 유목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 무엇이 대해 교육하는가?(교육대상 매체, 교육 내용)
- 어떻게 교육하는가?(교육 방법, 학교교과 유형)
-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교육장)
- 어떤 수준으로 교육하는가?(교육 수준)
-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교육대상 연령)
- 얼마나 자주 교육을 하는가?(교육 주기)
- 누가 교육을 하는가?(교육시행 주체)

물론 이런 분석 유목이나 분석들의 정리 작업은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인 미디어 교육 성격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보다 명료화하는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 미디어 교육 성격 분석을 위한 유목표

분석 유목	분석 내용
교육대상 매체	① 텔레비전 등 영상미디어 ② 신문 ③ 인터넷 ④ 영화 ⑤ 기타
교육 내용	① 미디어 내용 비판적 읽기 ② 미디어 관련 지식 습득 ③ 미디어 콘텐츠 제작 ④ 수용자 의식 함양 ⑤ 미디어 활용 교육(NIE)
교육 방법	① 메시지분석 ② 매체모니터 ③ 매체제작활동 ④ 매체의 교육적 활용
교육장(場)	① 학교 ② 사회 ③ 가정
교육 수준	① 지도자 대상 ② 일반인 대상
교육대상 연령	① 유치원 ② 초등 ③ 중등 ④ 고등 ⑤ 대학생 ⑥ 성인
교육 주기	① 정기교육 ② 비정기교육
학교교과 유형	① 제발활동 ② 창의적 재량활동 ③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 ④ 정규 교과시간을 할애한 교육
교육시행 주체	① 시민사회단체 ② 공공기관 ③ 학교교사 ④ 매체사

2) 한국 미디어 교육 성격 분석 결과 및 논의

(1) 교육대상 매체

미디어 교육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또는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활용교육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주교육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오늘날 모든 매체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각 매체마다 탄생 배경 및 역할 등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대상 매체별 경향은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2006년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 중 미디어 교육 분야에 지원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부록 <표 1> 참조)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나는데 영상매체 외에 다른 매체들도 혼합하여 교육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상 매체는 거의 빠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⁸⁾ 그런데 이런 경향은 방송위원회에 비해 신문활용교육(NIE) 등 상대적으로 인쇄매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한국언론재단 지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2> 참조). 즉, 2005년 한 해 동안 모두 23회의 미디어 교육 교사 연수 중 총 7회의 신문활용교육(NIE) 외에는 모두 영상 매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둘러싼 뉴미디어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가청소년

8) 2006년도 방송위원회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은 모두 53개 사업에 9억4천7백5십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 12단체에 총175,664,000원의 미디어 교육 활동사업으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였다.

(단위: 천 원, 개)

구분	계	미디어교육	방송모니터링	시청자캠페인	기획사업	중장기사업
금액	947,500	575,000	230,000	27,500	115,000	0
사업	53	30	15	2	6	0

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학부모정보감시단,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김기태, 2005b). 특히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게임, 휴대폰 등 각종 뉴미디어로 그 대상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권장희, 2005). 한편,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영화학회 주관의 영화읽기교육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등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역시 예술교육 차원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2006, 조진화). 이러한 영화읽기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육은 급기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2005.12.19, 법률 7774호)이란 이름의 법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대상 매체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매체 접촉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집중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특정 매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은 균형 있는 매체 소비자 수용이란 차원에서 라디오나 책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어울려져야 한다는 미디어 교육의 본래 취지에 비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매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 실시 경향은 한국 미디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의 자리를 텔레비전 중심의 영상매체가 차지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교육 내용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임·전경란, 2005).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등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 교재 13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등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이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내용 비판적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민단체 및 학교에서

의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리터러시 개념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미디어 제작’보다는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울러 국내 미디어 교육 교재 분석 결과에서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단순한 제작 교육에 관련된 교재가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미디어 교육 교재들에 나타난 ‘미디어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 중심의 분석이나, 해독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태도의 고양’을 평가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재에서 담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 구성에는 ‘제작’ 교육을 위한 단순 미디어 지식이나, 혹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미디어 해독의 개념보다는 단순하고 선연적인 ‘비판적 읽기’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실시를 위한 해결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미디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부분이다. 특히 제도적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결과는 한국 미디어 교육의 제도적 공교육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미디어 교육 연구 영역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학과와 교육학계가 상호협력 관계를

<표 2>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내용 영역

구분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	계(건수%)
미디어내용 비판적 읽기	1	2	3건(11.5%)
미디어 관련 지식 습득	5	4	9건(34.6%)
미디어 콘텐츠 제작	3	2	5건(19.2%)
수용자 의식 함양		1	1건(3.8%)

출처: 안정임·전경란(2005).

구축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미디어 교육 내용, 즉 교과과정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방법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은 미디어 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한 아래와 같은 교육 방법들이 각 교육 현장 상황 즉,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기간에 따라 고루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위원회, 2006).

첫째, 메시지 분석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다. 프로그램 또는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미디어 교육 방법인데 개인 또는 집단별 메시지 분석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워크숍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매체 감시활동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다.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수용자운동 차원의 미디어 교육 방법인데 이른바 각종 매체 모니터 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매체감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과 수용자운동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셋째, 미디어 제작 활동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다. 실제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돕는 방법인데 각종 신문제작교육을 비롯하여 TV, 영화 등 영상제작교육 그리고 만화제작교육, 인터넷 콘텐츠제작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 교육의 이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이다.

넷째, 매체의 교육적 활용 중심의 미디어 교육인데 대표적으로 신문활용교육(NIE)을 들 수 있겠다.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대부분 신문사들이 이를 중요한 독자 개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논술교육과 NIE를 연결시켜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 열풍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미디어 교육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모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교육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인 일회적 강의식 교육만은 보다 수용자 참여적이고 협동과제 해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장(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field)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모두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주체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한 논제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사회, 가정 등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다. 초·중·고교 등 제도권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교사나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또는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주도 아래 학교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심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개별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미디어 교육도 대부분 학교 현장 지도자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는 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⁹⁾ 특히,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교육의 경우는 학교 교사 대상 미디어 교육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추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으나(이동우, 2005), 단체의 위상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2006년에는 별다른 활동 실적을 쌓지 못한 실정이다.

9) 제9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에서 발표된 현장 사례 31건 중 총 19건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들째, 사회에서의 미디어 교육이다.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 또는 시민운동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다.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을 주도하는 유형이라고 할 만큼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유형인데 각종 언론운동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단체, 소비자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학교 교사나 학부모 또는 학생일지라도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시민사회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장은 역시 사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인데, 미디어 교육의 최종 실천 장소는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개별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중요하다. 다만 체계적인 교육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효과 측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주로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 미디어 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학교 미디어 교육 실시 현장 사례들이 일부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인 교사나 관련 교사 단체 소속 교사들에 의해 개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교육 수준

제9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에서 발표된 31건의 현장 사례 발표를 분석해 보면 순수한 일반인(학생, 성인 포함) 대상 교육이 15건, 지도자 대상 교육이 16건으로 서로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미디어 교육학회, 2005). 한편, 한국언론재단 2005년 미디어 교육은 대부분 교사 연수형태를 보임으로써 지도자 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육임을 알 수 있다(이동우, 2005).

이에 비해 방송위원회가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은 지원 사업 대부분이 청소년 중심의 일반인 대상 미디어 교육이었다(방송위원회, 2006).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인지 아니면 일반인 대상 교육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스스로를 위한 미디어 교육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분석 결과 비교적 분명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도자 교육과 피교육자 대상 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육 수준의 모호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말해주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겠다.

(6) 교육 대상 연령

한국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으로는 초등학교 대상 교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교 등의 순이었다. 2005년 미디어 교육 현장 사례 분석 결과 전체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사례 20건 중 11건이 초등학교 대상 교육이었고 중학생, 고등학교 대상 교육이 각각 4건씩이었다(한국미디어 교육학회, 2006). 이런 경향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현장 대부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연령별 분석 결과 유치원 등 유아 대상 교육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미디어의 영향력 범위가 갈수록 저연령층으로 넓혀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미디어 영향력의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유치원생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한 바 있다.¹⁰⁾ 한편, 성인 대상 미디어 교육의 경우는 연령층에 따른 분석 보다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주부 대상 교육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 2006년 한 해 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학부정보감시단에서 유치원생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실제 유치원 어린이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연령층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령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 등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주요 대상층이 주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라는 평가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인 셈인데, 보다 균형 있는 미디어 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앞으로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 대상 교육으로,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유치원생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교육 주기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교육이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정책이나 제도 또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기획,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련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단체가 달라지고, 모든 지원이 공모 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제 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 시행의 정기성뿐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교육은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교육 내용과 수준에 따른 교육의 질이나 심층성을 높여가는 단계적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교육에서의 제도화된 미디어 교육 실시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의 정기성과 체계성, 전문성은 상호연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의 수월성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8) 학교교과 유형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 외 활동인 재량활동 영역의 도입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2, 3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은 그동안 중심을 이루었던 특별활동 이외에도 재량활동을 통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7차 교육과정은 크게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해당되며, 후자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된다. 제7차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미디어 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모든 교과수업과 특별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시에 새로 도입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 3학년에 적용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선택 과목의 하나로서 미디어 교육이 개설될 수도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사실 이제까지 미디어 교육이 특별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더 주어지는 재량활동 등을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든 미디어 교육이 제도 교육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주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에 노출되는 비율이 낮았다.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이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이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은 미디어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가장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유형은 계발 활동을 통한 교육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계발 활동은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주당 1시간씩 1년 34시간 정도가 교육과정상 활용할 수 있는 시수이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격주로 2시간을 묶어서 월 1회 4시간을 토요 전일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발 활동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교육 활동을 위해 일정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해당 부서를 선택한 학생들로 수강생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시수가 적은 교사들에게 배정하는 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당 1시간 정도 교사의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미디어 교육이 지니는 장점은 교육 대상이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자기주도 학습과 범교과 학습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창의적 재량 활동 담당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가능한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의 제시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방과 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일정액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와 동기가 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현재 단순 미디어 제작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미디어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과는 다른 교육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한 미디어 교육으로 현재 국어 과목 교사들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¹¹⁾ 일부 도덕과 사회 과목 교사들도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해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술과의 일부 교사들은 미학적 분석을 토대로 올바른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의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어과의 경우에 비하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입시교육 위주의 현재 한국 공교육 현장에서 교과 수업 시간을 쪼개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¹²⁾

11) 전국국어교사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 교재, 교육방법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 각 지역 모임까지 생겨나 활발한 자료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www.naramal.or.kr 참조).

(9) 교육시행 주체

한국 미디어 교육의 시행 주체는 크게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학교, 매체 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김기태, 2004).

첫째,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는 미디어 교육으로 한국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시민사회단체 중심 미디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장 활발한 실천 유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인 미디어 교육 실시 초기부터 언론수용자운동 차원의 모니터운동 또는 모니터 요원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이란 개념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한국의 매체 및 교육환경이 크게 변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99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매년 12월에 개최된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 사례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 발표 내용의 약 2/3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 사례인 것을 알 수 있다(한국미디어 교육학회, 1997~2006). 동시에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방송위원회가 지원한 미디어 교육 사업의 추진 주체들 역시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¹³⁾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언론수용자 양성 교육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언론수용자의 집단적 의사 표현 수단인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역사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추진 주체인 미디어 교육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미디어

12) 미디어 교육은 특성상 창의력 향상 또는 통합 교과 교육 등 공교육 개혁을 위한 대안 차원의 교육이긴 하지만 특단의 교육 개혁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정규 교과목을 통한 미디어 교육 실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13)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참조.

교육은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사례들이 가장 활발하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들 대부분이 2000년 이후부터는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이렇듯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거나 중심이 되는 미디어 교육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상은 미디어 교육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갈릴 것이다.

셋째, 학교 교사 중심의 미디어 교육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여부는 교육 실천의 주체인 학교교사들의 의식과 실천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디어 교육 시행 초기에 시민사회단체 중심 미디어 교육의 비중이 컸다면 갈수록 학교 교사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현재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은 교사 들이 미디어 교육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열린 제10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사례 발표가 전체 발표의 절반을 넘어 섰다(한국미디어교육학회, 2006).¹⁵⁾ 특히 현장 교사 개인 차원의 실천 외에 조직적, 집단적 활동을 통한 미디어 교육 실천 사례가 중요한데 현재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모임들을 정리해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산하 과목별 협의체에서의 미디어 교육 연구 및 실천 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전국미디어 교육교사연합회,¹⁶⁾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깨미동), 서울중등미디어 교육연구회¹⁷⁾ 등이다.

14) 현재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직접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을 나열해 보면 방송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부, 방송문화진흥회,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문화진흥원, 한국통신문화재단 등이다.

15) 2005년 제9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에서는 전체 31건 사례 발표 중 총 10건이 학교 현장 교사들의 사례 발표였다.

16) 1997년 12월 제1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창립되었으나 현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이다.

17) 1994년 8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 미디어 교육실에서 개최한 중등교사 미디

끝으로 매체사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인데 2년 전인 2004년 한국방송공사(KBS)는 미디어 교육 전담 부서를 만들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작 교육 등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이고(남주나, 2004), 문화방송(MBC)은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과 각종 미디어 교육 사업 지원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이의주, 2004).¹⁸⁾ 교육방송(EBS)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¹⁹⁾ 신문사의 경우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신문사들이 신문을 활용한 교육, 즉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현재 한국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육 대상 매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장(場), 교육 수준, 교육 대상 연령, 교육 주기, 학교 교과 유형, 교육 시행 주체 등의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 교육 연수에 참가한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미디어 교육교사 단체로서 1999년까지는 매 방학마다 미디어 교육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18)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fbc.or.kr) 시청자지원사업 참조

19) 교육방송은 중고생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가 보인다>를 주간 프로그램으로 총 54회 방송한 바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와우 미디어 탐험>을 총 20회 방송한 바 있다. 현재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바로보기>를 매주 1회씩 방송하고 있다.

첫째, 교육 대상 매체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매체 접촉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집중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특정 매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은 균형 있는 매체 소비자 수용이란 차원에서 라디오나 책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어울려야 한다는 미디어 교육의 본래 취지에 비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매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 실시 경향은 한국 미디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의 자리를 텔레비전 중심의 영상매체가 차지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내용 비판적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민단체 및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리터러시 개념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미디어 제작’보다는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재에서 담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 구성에는 ‘제작’ 교육을 위한 단순 미디어 지식이나, 혹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미디어 해독의 개념보다는 단순하고 선언적인 ‘비판적 읽기’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은 교육 현장 상황, 즉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교육 방법은 메시지 분석 중심 교육, 매체 감시활동 중심 교육, 미디어 제작 활동 중심 교육, 매체의 교육적 활용 중심 교육 등이었다. 물론 모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교육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되어 활용되어

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인 일회적 강의식 교육만은 보다 수용자, 즉 학생 참여적이고 협동과제 해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 사이에는 모든 교육이 상호교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주로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 미디어 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학교 미디어 교육 실시 현장 사례들이 일부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인 교사나 관련 교사 단체 소속 교사들에 의해 개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분석 결과 비교적 분명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도자 교육과 피교육자 대상 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육 수준의 모호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말해주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지도자 대상 교육과 일반인 대상교육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한국언론재단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교사 대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여섯째, 교육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이었으며 유치원 대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주요 대상층이 주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라는 평가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인 셈인데, 보다 균형 있는 미디어 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앞으로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 대상 교육으로,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유치원생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육이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정책이나 제도 또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기획,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 시행의 정기성뿐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교육은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은 개발활동(CA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한 미디어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주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에 노출되는 비율이 낮았다.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이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이에 비해 제7차 교육 과정은 미디어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미디어 교육 시행 주체는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교육과 공공기관 미디어 교육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분석되었고, 점차 공공기관 지원 미디어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사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체사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문화방송과 교육방송의 미디어 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 교육 제도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물론 적지 않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지만 학교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를 비롯한 제도적 정착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환경과목이나 성교육 등이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지만

성(性)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내로 편입된 것을 볼 때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련 자료를 모으고 사례를 축적하는 일 등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전문성과 실천성을 지닌 미디어 교육 추진 주체들의 역량이 미디어 교육 공교육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이 공교육으로 채택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단지 미디어의 유해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목적과 같은 보호주의적 시각만으로는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독립교과목으로서의 미디어 교육 과목 신설보다는 계발활동(CA)이나 창의적 재발활동 또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나 정규교과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 연계 또는 통합 실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특별활동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대학 입학시험에 미디어와 관련된 이슈가 논술시험 주제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디지털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이 크게 증대하면서 미디어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도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제도화 외에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많다. 특히 미디어 교육 관련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지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좋은 교재 개발이다. 미디어 교육의 성공 여부는 미디어 교육이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성찰과 훈련에 의해 장기적이고 통합된 욕구를 학교에서 교사들의 협조 아래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연수교육 및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 간의 수업 경험, 교육 전략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 등을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요구된다.

현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수업 풍토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기란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교사의 노력이나 의욕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 현재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소그룹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학술적,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 미디어 교육이 공식적인 교과과정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교육여건을 일선 교사들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여기에는 대학을 비롯한 미디어 학계, 방송사, 미디어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국의 교육 제도 및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 현실성 있는 미디어 교육 추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학교 공교육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학교 미디어 교육 실시를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목>의 독립교과화 추진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미디어 교육 독립교과목화에 필요한 실천과제 정리가 필요하고 공교육화를 위한 제반 현실적 문제 진단을 위해 새로운 독립교과목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미디어 교육 도입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과제를 수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후속으로 논의하게 될 학교 미디어 교육 제도화 논의를 위해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인 셈이다.

Ⅰ 참고문헌

- 권장희 (2005).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미디어 교육 사례. 『제9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297~305쪽).
- 김기태 (1988).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언론문화연구』, 제6집.
- _____ (2004). 한국 학교 미디어 교육의 실태 및 특성. 미디어 교육 연구보고서 2004-01. 『학교 미디어 교육 도입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교육위

- 원희.
- _____ (2005a). 초·중등학교 미디어 교육 목표 및 방향 설정 연구. 미디어 교육연구 보고서.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교육위원회.
- _____ (2005b). 『사이버윤리교육 실태 및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남주나 (2004). 한국방송KBS 미디어 교육 추진 사례. 『제8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88~98쪽).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 방송위원회 (2006). 2006년도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 지원내역. 『제10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 안정임 (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나래.
- _____ (2000). 미디어 교육의 한국형 모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4-2호 한국방송학회.
- _____ (2005). 학교 미디어 교육 교재 분석. 『학교로 간 미디어』(309~354쪽). 서울: 다할미디어.
- 이동우 (2005).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교육 추진 사례. 『제9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43~56쪽).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 이의주 (2004). 방송문화진흥회 미디어 교육 사례. 『제8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80~87쪽).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 조진화 (2006). 성인대상 미디어 교육 사례: 독서, 논술교사 대상 영화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제10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발제집』.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 최창섭 (2000).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 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청소년정책 전문연구 7.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1997~2006).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제1~10회 발제집.

(최초 투고 2006.12.1, 최종 원고 제출 2007.1.30)

Ⅰ 부록

<부록 표 1> 방송위원회 2006년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내역

(단위: 천 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래방송인영상아카데미	40,000
경남민언련	찾아가는 미디어 시범학교	2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 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	43,000
광주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전문가 양성교육	10,000
군포YMCA/안양YMCA	미디어로 여는 세상 “미디어 바로보기, 거꾸로 보기, 만들어보기”	22,000
대전충남민언련	소외지역 공동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10,000
대전YMCA	엄마랑 함께하는 미디어체험	16,000
대전YWCA	1318 청소년 미디어영상캠프 ‘카메라에 우리의 꿈을 담는다’	12,000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디지털 청소년영상제작교육 및 온라인방송을 통한 활성화 프로그램	25,000
미디어 교육연구소	미디어 교육 전문가를 위한 영상제작 캠프	9,000
부산교육문화센터	찾아가는 어린이 미디어 주말학교	7,000
부산민언련	공부방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10,000
부산여성회	양성 평등한 지역방송문화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앵글”	16,000
서울YMCA	풀뿌리 미디어 교육사업-대안학교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28,000
수원YMCA/안산YMCA	모두가 소통하는 미디어 교육	34,0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운동을 위한 미디어 교육	15,000
원주YMCA	지역 청소년이 만드는 ‘다큐가 좋다’	20,000
장애인문화공간	커뮤니케이션 권리확보를 위한 장애인영상미디어 교육	20,000
진주여성민우회	제2기 미디어강사양성교육 및 초등학교 미디어 교육	5,000
진주YMCA	청소년 영상미디어 스쿨	12,000
청주YMCA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및 방송캠프	15,000

청주YWCA	청소년 미디어영상교육	16,000
춘천YMCA	청소년의 영상활동 증진과 확대를 위한 미디어 교육	36,000
달북청소년 교육공동체 셋넷 학교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13,000
포항YMCA	찾아가는 영상제작학교	10,000
한국여성민우회	2006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워크숍 및 초등미디어 교육	35,000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어린이 미디어 이해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20,000
한국청소년마을	청소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19,000
한국YMCA 전국연맹	카메라로 찾아보는 '시시콜콜 우리동네'	20,000
KCB한국어린이방송제작단	문화소외지역 미디어영상 순회교육	17,000
계		575,000

출처: 방송위원회(2006).

<부록 표 2> 한국언론재단 2005년 교사연수 실시 현황

구분	연수명	기간	과정	인원	
기초 연수	서울	미디어 교육 교사연수 (3회)	미디어이해교육 신문제작교육 영상제작교육	344명	
		서울시 중등 사회과 연수	1월 4일	미디어 교육 이해	38명
		NIE 교사연수(2회)	11월 11일~19일	NIE	108명
	부산	학교미디어지도교사연수	7월 25일~27일	신문제작과정 교지제작과정 영상제작과정	171명
		미디어 교육 교사연수	8월 8일~12일	신문제작과정 영상제작과정	54명
		NIE 교사연수(2회)	11월 25일~ 12월 3일	NIE	80명
대구	미디어 교육 교사연수	8월 1일~5일	신문제작과정 영상제작과정	34명	

		NIE 교사연수(2회)	11월25일~ 12월 3일	NIE	80명
광주		미디어 교육 교사연수	8월 8일~12일	미디어 교육과정	49명
		NIE 교사연수	11월 25일~26일	NIE	43명
목포		NIE 교사연수	12월 2일~3일	NIE	46명
대전		NIE 교사연수	11월 17일~18일	NIE	60명
청주		NIE 교사연수	11월 24일~25일	NIE	62명
심화 연수	서울	미디어 교육 심화연수	8월 1일~4일	영상제작과정	39명
	대전	미디어 교육 심화연수	8월 1일~12일	영상제작과정	20명
전문 연수	서울	미디어 교육 전문연수	10월 4일~ 12월 20일	미디어 교육과정	24명
온라 인 연수	전국	사이버 교사연수(2회)	8월, 12월	미디어이해교육 신문제작교육 영상제작교육 인터넷미디어 교육 신문활용교육	500명
계		23회			1,752명

출처: 이동우(2005).

Characteristics of Media Education in Korea

Ki-Tai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o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edia educ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media education case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in education field. Analyses were conducted on educational media, education contents, education methods, education fields, education levels, age of educated people, education cycle, school curriculum patterns and education-performing organizations.

The educational media were in the rank order of vision media, new media such as internet, newspaper and movies.

The education contents were mainly compose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media followed by media production and media literacy.

The media education was conducted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school, society and family.

For the education methods, message analysis, media monitor education, media production and media in education were dominantly us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be the main target of media education, while there was no media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Current media educations in school were being performed using club activity, creative activity, talent-raising education after school and regular class.

Key words: media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after school, regular class